

더불어숲, 마을에 살다

마을공동체, 우리들의 이야기

“이 문집에 쓰인 글들은 공동의 기억이다. 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뛰어놀던 찬란한 시간 동안 이 마을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적었다. 이 책은 함께 살기의 이야기다. 또한 우리가 겪어온 마을살이의 추억들을 곱게 간직하고 기억하기 위한 글이다.” (신나리)

“또래 아이들이 많은 마을, 학원에 많이 보내지 않는 마을. 마을 길에 자동차 대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왁자지껄 수다가 들리는 마을. 집 담장이 높지 않아 언제든지 친구 집에 갈 수 있는 곳……. 마을을 둘러싼 숲속 가운데에 자리 잡은 아늑한 타운하우스를 찾아냈다.” (최정애)

“진통이 시작된 지 20여 분 만에 태어난 첫째, 출산하러 가려고 신발을 신다가 갑자기 시작된 진통으로 집 거실에서 만났던 둘째, 그야말로 진통만 걸리면 바로 출산이 진행되는 특수한 자궁을 가진 덕에 셋째는 집에서 낳기로 결심했다.” (한진)

“우리 아이들은 마을속에서 자랐다. 엄마보다 마음이 잘 통하는 이모도 있고, 새로운 놀이로 마음을 사로 잡았던 언니들, 컴퓨터 게임의 대가인 이웃집 오빠, 너무나 잘 뭉쳐 놀아서 늘 끼고 싶은 동생들……. 늘 한 가족같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살피 주었던 이 모든 이웃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웠다.” (유희은)

“동요의 정겨운 노랫말이 저절로 입에 붙는 건기 좋은 마을. 어디서든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넉넉한 이 골목길을 따라 마을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서로에게 다가간다.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시는 꽃중년 언니들과 여러 이웃들의 좋은 기운이 온 마을에 스며든다.” (김세훈)

*

본 문집은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2021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더불어숲, 마을에 살다

마을 공동체, 우리들의 이야기

글쓴이 김세훈, 신나리, 유희은, 최정애, 한진

글쓴이 소개

김세훈

작은 마당이 있는 네모난 집에서 아동미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두 아이에겐 엉뚱한 엄마이고 남편에겐 처키 인형이며 뒤뜰 고라니에겐 만만한 이웃으로, 집에서 만나는 자연과의 일상들을 사진과 글, 그림으로 담아낸다.

신나리

무심하게 자라는 잡초와 야생화 속에 아이를 방임하며 틈틈이 글쓰기를 한다.
아이와의 육아 황금기를 주택 살이 속에서 만끽해보려 한다.

유희은

가슴 뛰는 일을 꿈꾸며 직장을 그만두고 마흔에 ‘안양동 양조장’을 차렸다.
마을 살이의 즐거운 추억을 육아 동지들과 글로 남기며 다시금 가슴 뛰를 느낀다.

최정애

주택에서 자연과 함께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엄마이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진

여행 같은 삶을 꿈꾸는 마흔넷 아줌마. 단순하고 웃음 많은 오지라퍼.
제주 일년살이 중 만나는 자연과 사람들에게 마음 활짝 열고 지내고 있는
요즘이 행복하다.

여는 글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더불어숲’에 입주했다. 아이가 세 살이던 무렵이었다. 20평 아파트의 네모난 방과 근처 놀이터를 오가며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매일 고민하던 나는, ‘더불어숲’ 마을을 한 번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버렸다. 당시 마을은 이미 90% 정도의 입주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나는 마지막 남은 몇 채 중 하나를 운 좋게 잡은 셈이었다.

그리고 지금. 파릇파릇해진 잎사귀와 팡팡 터져 나오는 꽃들로 둘러싸인 4월의 마을을 산책하며 중얼거린다. “이곳에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어디에서나 또래 아이들과 엄마들을 만났다. 때론 아이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치기도 하고 내 아이가 불쑥 찾아가기도 했다. 마을의 ‘마녀회’와 ‘라이크북’에선 계절마다 플리마켓, 나무 심기, 물총놀이, 할로윈 파티, 그림 놀이, 생태 수업을 열고 역사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을이 있을 수 있느냐고, 유토피아가 아니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마을 주민 전부의 경험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이곳에서 한 시절을 아이들과 진하게 겪은 이라면 누구나 추억할 수 있는 생생한 경험들이다.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예전과 같은 마을 활동들은 열지 못하게 되었고 그사이 아이들은 쑥 자라버렸다.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면서 허전함과 아쉬움을 달랬다. 코로나로 ‘집콕’하느라 몸이 근질거리던 차, 마을 모임 ‘라이크북’ 회원들은 7년 간의 마을 활동을 정리하는 글을 써보자는 데 마음을 모았다. 참여 신청을 받고 다섯 명이 모였다. 마침 용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공부 모임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신청했다. 소정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활동의 기간과 목표가 정해지자 글쓰기 모임은 추진력을 받았다.

‘더불어숲’에서 겪은 일들을 글로 남겨보자.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

고 유지되며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글쓰기 모임의 목표를 다소 거창하게 잡고 일단 판을 벌이긴 했는데 막상 무엇을 써야 할진 백지였다.

글쓰기를 한창 하던 2021년 가을에서 겨울까진 코로나로 인해 4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인 상태여서 2주에 한 번씩 밤마다 ‘줌(zoom)’으로 만났다. 우린 서로의 경험과 기억과 추억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변화에 따라 떠올렸다. 각자 쓸 수 있는 주제를 정했다. 신기하게도 몇 년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빈 퍼즐이 맞춰졌다.

처음엔 주제를 정하기조차 어려웠지만, 대여섯줄에서 시작한 글은 한 페이지로 늘었고 두 세 페이지를 거뜬히 채워나갔다. 쓸 말이 없다며 머리를 긁적이던 시간이 지나자 하룻밤 사이에 두세 장을 써오기도 했다. 글쓰기가 처음이라며 쑥스러워했지만 모임이 더해지자 자기 글을 먼저 읽어보겠다거나 봐달라면서 성화하게 되었다. 우린 모임 때마다 각자의 글을 낭독하고 글에서 고칠 부분이나 채워야 할 부분을 말해주었다.

이 문집에 쓰인 글들은 공동의 기억이다. 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뛰어놀던 찬란한 시간 동안 이 마을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적었다. 이 책은 함께 살기의 이야기다. 또한 우리가 겪어온 마을살이의 추억들을 곱게 간직하고 기억하기 위한 글이다. 이웃들에게 서운했다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가 다툼이 일어났다거나 속상했던 일들은 일부러 담지 않았다. 좋은 추억들을 담기에도 지면은 부족하다.

이 마을에 비교적 늦게 입주한 나는 마을 살이를 겪지 않고 이 글을 읽을 독자의 입장에 가까울 것이다. 독자이면서도 이 문집을 편집한 관점에서 나는 여기에 실린 글들을 내 아이와 내 가족에서 벗어난 ‘우리’의 이야기로 읽었다.

시중엔 주택에 관한 글도,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책도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한 마을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이야기는 아마도 드물 것이

다. 이 문집에 실린 글들이 특별한 이유는 내 가족, 내 집이 마을과 더불어 있고 늘 이웃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공동체 속에서 자라고 생동한다는 점이다. 집마다 단절된 채 내 가족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미덕처럼 된 세상에서 내 아이들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내 가족이 아닌 우리 마을의 이야기는 무척 소중하다.

글을 쓰고 읽고 고치며 내가 가장 많이 떠올린 바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란 누군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지금, 그리고 직접 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말을 걸어본다.

“이제 당신의 깃발을 들어주세요.”

글쓴이들의 마음을 모아 담아
더불어숲에서, 신나리

발간사

더불어숲 타운하우스는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돌봉산(석봉)이라 불리는 바위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입주 초기에 택시를 타면 마을의 위치를 잘 모르는 기사에게 ‘용인초등학교와 전화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산 밑까지 쪽 올라가면 된다.’ 라고 한참을 설명해야 했다. 용인 토박이라는 한 기사는 마을 초입에서 차를 돌리며 ‘전화국 뒤 빨래터가 참 많이 변했네!’ 라며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의 눈에는 우리 마을이 빨래터 자리에 들어선 별천지쯤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별천지. 나는 별천지라는 말이 우리 마을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사계절의 풍경도 아름답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아름다움이 우리 마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면서 우리가 아닌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아직까지 우리 마을에는 우리의 미덕이 존재한다. 사람 사는 정을 느낄 수 있다랄까.

이 책은 더불어숲 타운하우스 마을 주민들의 모임인 ‘라이크북’ 회원들이 쓴 글들을 모아 엮었다. 우리 마을 집들은 겉으로 보기에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140여 세대가 다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다. 이 책의 글들도 그렇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은 다 비슷할 텐데 다섯 사람이 다 다른 시각으로 자신들만의 개성 있는 문체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한 마을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한 입장에서 그들의 글을 읽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글이 술술 잘 읽혔고 내용이 가슴에 더 와 닿았다.

‘개인의 삶이 곧 역사가 된다.’ 라는 말이 있다. 여기 실린 글들은 다섯 사람의 개인적인 기록이지만 멀리 내다보면 우리 마을 역사의 초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책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동문학가 표시정

목 차

- 글쓴이 소개 · 5
- 여는 글 : 내 아이, 내 가족에서 우리 아이, 우리 마을로 · 6
- 발간사 · 9

1부 _ 집을 지었다, 마을에 들어왔다.

- 주택은 육아의 도피처 (최정애) · 14
- 이곳, 더불어숲에서 만난 셋째 만복이 (한진) · 18
- 고라니와 함께 식사를 꿈꾸며 (김세훈) · 23
- 잡초와의 전쟁 (신나리) · 27
- 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최정애) · 31
- 번개치던 날 (유희은) · 35
- 떠돌이 닭 두 마리, 가출 닭 두 마리 (김세훈) · 39

*인터뷰 : 주택에 살고 싶으세요? · 43

2부 _ 마을에서 함께 살다.

- 물놀이의 계절 (한진) · 48
- 할로윈 파티 열리는 날 (한진) · 53
- 마을에서 자란 아이 (유희은) · 57
- 잘 먹겠습니다 (김세훈) · 62
- 쑥절편 (유희은) · 66
-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김세훈) · 69
- 라이프북 여행 일기 (유희은) · 72
- 라이프북의 아이들 (김세훈) · 76
- 땀뽀이 화랑의 마당 (김세훈) · 81
- 더숲 마녀회 (유희은) · 86
- 당신의 깃발을 들어주세요. (최정애) · 90

*인터뷰 : 어떻게 코로나를 보냈나요? · 94

달는 글 :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썼다. · 96

1부_ 집을 지었다, 마을에 들어왔다

주택은 육아의 도피처

최정애

남편이 다시 긴 출장을 갔다. 둘째를 임신하고 심한 입덧을 하던 가운데 남편이 없는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첫째 딸아이를 봐주시던 엄마도 두 명은 업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아이 둘과 나, 셋이서만 지내는 시간이 자꾸 늘어갔다.

주변 환경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엄마 집 근방에 위치한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아이들이 2명이 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힘이 들었다. 그동안 무서워 하지 못했던 운전에도 도전했다. 긴장 탓에 손바닥에 흠뻑 젖은 땀을 연신 닦아가며 핸들을 잡았고 어느덧 편하게 차를 몰 수 있게 되었다. 아이 둘의 엄마가 되어 용감해진 걸까,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나의 첫 전원주택 살이는 이처럼 독박 육아의 도피처로 시작되었다.

연세가 있으신 이웃들과 마당에 있는 동물들, 몇몇 동네 꼬마들이 첫째 규리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몇 가구 안 되는 작은 마을은 누구네 집 아이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고, 놀다가도 다른 집 마당에 가서 물을 얻어 마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나는 옆집 할머니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다시 출근을 할 수 있었다. 놀아주는 육아가 즐겁지 못한 나는, 회사에 다니며 느끼는 만큼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이상적인 현모양처형 전업주부가 되기엔 현실의 나는 한없이 부족했다. 우울했다. 좀 더 잘하고 인정받는 것을 하고 싶었다. 주택살이를 하며 만난 이웃들 덕에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편의 직장 이사로 연고 없는 지역의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아이를 맡길 만한 신뢰가 가는 곳이 있을 리 없었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혼자 하는 육아가 시작되었다.

고르고 고른 동네는, 근처에 산이 있고 녹음이 우거진 대단지 아파트였다. 도서관이 많고 아이들이 많이 사는 곳을 골라 이사를 했다.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체념도 들었다. 이왕 할 육아라면 나도 즐겁고 아이도 즐거운 곳을 찾아야지 싶었다.

두 번째 전담 육아에서는 육아 가치관이 비슷한 또래 엄마들과 어울리며 엄마라는 역할에 적응이 되어서였을까. 첫 번째 전담 육아보다는 비교적 수월했다. 함께 산과 들을 다니며 즐겁게 지냈고, 서로에게 일이 있을 때는 아이들을 맡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건너편 다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들이 많아 대부분 아이를 따라다녀야 했다. 내 시간은 늘 부족했다. 내가 꿈꿔왔던 놀이에 대한 생각과 맞지 않은 일도 자주 일어났다. 놀이는 아이들만의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 어른들이 만든 형식이 아닌 아이들 스스로 천천히 하나씩 찾으며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

그러나 아이들을 따라다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건 이렇게 하면 돼.”라고 자꾸만 쉽고 편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현실 속의 나는 눈앞에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안심이 안 되는 엄마였다. 놀이의 주체가 아이들이 되려면, 가르치고 참견하고 싶은 어른인 내가 없어야 했다. 대단지 아파트라는 환경은 이런 나의 육아 방식과 맞지 않았다. 엄마와 아빠의 역할은 아이에게 사랑으로, 안정감과 평온함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곧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놀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점점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친구들은 같은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과 더 어울리게 되었다. 학원에 가지 않으니 놀 친구가 없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생겼다. 친구를 만나려면 학원에 다녀야 하다니……. 어릴 때 친구들과 맘껏 놀면서 자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렇게 나는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두 번째 전원주택이다. 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해 친구들과 걸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전원주택을 찾아다닌 결과였다. 또래 아이들이 많은 마을. 학원에 많이 보내지 않는 마을. 마을 길에 자동차 대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왁자지껄 수다가 들리는 마을. 집 담장이 높지 않아 언제든 친구 집에 갈 수 있는 곳……. 마을을 둘러싼 숲속 가운데에 자리 잡은 아늑한 타운하우스를 찾아냈다.

더불어숲 타운하우스의 대다수 집은 한 건물에 두 집이 맞닿아 있는 듀플렉스

100명이 넘는 단톡방에서 환영의 인사가 끊임없이 올라왔다.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마을 소식의 중요한 창구다.

어느 날에는 아이를 찾는 특이 올라오기도 한다. “저녁 시간에 죄송해요. 혹시 4단지 김준수 보신 분 계실까요?” 파란색 야구점퍼를 입은 짓궂은 표정의 남자 아이 사진과 함께 특이 올렸다.

“약수터 입구 앞 공터에서 저희 아이랑 공놀이하고 있어요. 얼른 집으로 가라고 할게요.”

“어휴, 거기 있었군요. 고맙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저녁이 되는 줄 모르고 어디선가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던 우리의 엄마들처럼, 우리 마을은 단톡방에 아이의 위치를 물으면 누군가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함께 찾아봐 준다. 마을이 모두 아이들을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 준다. 나와 굳이 손잡고 나가지 않아도 아이들끼리 자연스럽게 친구들의 집을 다니며 놀았다. 내 일정과 상관없이 스스로 놀이 스케줄을 잡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를 했다. 나와 아이 모두 마을 속에서 그리고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쉬었다.

요새는 저녁 늦도록 친구네 집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는 게 나의 일상이 되었다. 아이들은 공식적으로 외박을 허락받은 ‘파자마 생일파티’를 손꼽아 기다리며, 놀이를 끝내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처럼 따뜻한 저녁이 준비되어있는 집으로. 동네 친구들이 모인 단톡방의 엄마들은 “이제 그만 해산!” 특을 날리며 오늘도 저녁상을 차린다.

고라니와 함께 식사를 꿈꾸며

김세훈

아침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걸까.

밤새 폭신한 잠자리에서 늘어질 대로 늘어진 내 몸 곳곳에는 아직도 헤어 나오지 못한 잠의 조각들이 베개를 가리키며 다시 누워도 된다고 달콤한 손짓을 보낸다. 그러나 강렬한 베개의 유혹을 물리치고 먼지 같은 잠가루들을 가까스로 털어내며 가장 먼저 내가 하는 일은 뒤뜰이 바로 보이는 창밖에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다. 그렇게 몸의 상부만 일으켜 세운 상태로 뻑뻑한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하다 보면 내 시선의 좌측, 혹은 우측 어딘가에선 금세 날 썩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한다.

포착되는 생물들은 계절의 풍경과 함께 달라지지만 박새와 딱새, 참새들은 365일 아침을 함께 시작하는 아이들이고, 운 좋은 날엔 대왕 참나무의 가지를 활보하는 청설모나, 밤나무의 수피를 간질이며 위 아래로 종횡무진 활약하는 귀여운 동고비를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명배우가 있으니 바로 고라니 친구들이다. 마치 나무나 돌처럼 고정적인 자연의 일부인 듯, 혹은 주인이 인테리어 가게에서 고가에 구입해다 앉혀 둔 실사판 조형물인 듯 아주 안온한 자세로 다리를 쭉 펴고 앉아있는 고라니라니! BBC 동물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우리집이 동물원 우리도 아닌데 어찌면 저렇게 매일 아침 한결같은지.

집 뒤에 낮은 산이 있는데 산과 바로 인접해 있는 우리 집이 아무래도 먹이를 구하러 내려오기가 수월했던 게 아닌가 싶다. 또 집과 산을 잇는 언덕도 워낙 낮고 그 언덕 중간쯤에는 길고 좁은 평지에 키작은 전나무가 자라고 있으니, 고라니들에게겐 따사로운 햇빛을 누리고 바람을 피해 휴식을 취할수 있는 더없이 편안한 쉼터가 되는 모양이다.

등장하는 고라니는 암컷, 수컷, 새끼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그들의 몸짓은 시시 때때로 다른 말을 한다. 긴 다리와 몸통을 바닥에 밀착시킨 채 초롱초롱한 눈과 귀만 쫓긋거리기도 하고, 슬금슬금 일어나 온몸을 쭉 펴며 기지개를 켜는가 하면, 입으로 옆구리 어딘가를 긁어대기도 하다가, 피곤에 지친 사람처럼 게슴츠레해진 눈으로 금세 꾸벅꾸벅 조는 모습까지, 몇개 없는 콩잎을 뜯어먹을 때는 또 얼마나 야무지게 먹는지 모른다. 매일 아침 저 작은 언덕 고라니에게 아침인사를 하다 보니 나는 꼭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 정도면 고라니가 우리집 반려동물이라 해도 어색함이 없을 듯하다.

처음 고라니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이곳 숲속 타운하우스에 입주하고 얼마 안 된 봄 무렵이었다. 모두가 잠들었을 야심한 시각. 그 깜깜한 밤 고요한 적막을 깨고 갑자기 어디선가 고성을 지르며 거칠게 화를 내는, 정말로 살벌한 소리가 났다. 도대체 어느 집에서 이시간 이렇게 요란한 싸움을 하는 건가!

날이 새고 다음 날 이웃분께 소리의 출처를 확인해 보니 범인은 다름 아닌 고라니였다. 게다가 분노의 포효가 아닌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수컷의 야성미 넘치는 소리라고. ‘어머나! 고라니! 너 무슨 구애를 그렇게 박력 있게 하니~ 암컷들이 시비 거는 줄 알고 다 도망가겠다, 애.’

고라니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일 년쯤 후에 가족 여행을 다녀오느라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운 일이 있었다. 낯설고 화려한 외국 음식 속에서 풋고추에 싹장이 얼마나 그립던지, 나는 귀가 하자마자 입맛을 다시며 고추나무가 있는 뒤뜰로 갔다. 그러나 이게 무슨 일이고! 초록이 무성했던 내 고추밭은 어디로 가고 어찌하여 즐기만 앙상한 한겨울 풍경이란 말인가! 여덟 그루의 고추 나무 중 네 그루의 아삭이 고추는 잎이 다 뜯겨 볼품없이 즐기만 남아 있었고, 청양고추 네 그루는 그나마 잎과 열매가 몇 개씩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 와중에 고라니도 매운 건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씹다 뱉어둔 것 같은 흔적은 여기저기 역력했고, 멀칭 비닐 위로 움푹 팬 여러 개의 발자국……. 주인 없는 틈에 마음 놓고 난입하여 잔치를 벌

였다가 예상에 없던 매운 고추를 먹고 난데없이 화마와 전쟁을 치렀을 고라니를 생각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숲속에 둘러싸인 이곳에 터를 잡은 지 6년이 된 지금은 내가 가꿔놓은 채소들을 거침없이 먹어버리는 고라니 녀석들 덕분에 매해 그들의 존재를 절실히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분노하거나 탓하지는 않는다. 언제나 상냥한 미소를 건네며 관대한 마음으로 우린 그저 공생하고 있다. 운명이라 받아들이며.

물론 아주 가끔은 야속한 생각이 들때도 있다. 그러나 내 식재료를 야생동물과 나누어 먹는다는 현실이 여간 간지럽고 짜릿한 기분이 아닌지라, 나는 고라니가 즐겨 앓는 텃빈 고정석을 향해 큰소리로 묻기도 한다.

"고라니~ 이제 뭐 먹을래~~~? 토마토 심을까~~~? 가지는 어때~~~? 시장에 파프리카도 나왔더라~~~뭘라구? 안들려~~~~!"

삽으로 땅을 고르던 남편은 말한다.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내 아내가 결코 이상해진 게 아닐 것이라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은 무슨 일인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작은 언덕을 떠나지 않고 있다. 비가 오니 비를 피해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이겠지만 날이 꾸물꾸물해서 그런지 괜히 걱정이 된다. 어디가 아파서 못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 설마 갈 곳이 없어 외로운 것도 아닐 테고. 엄마랑 만나기로 했나? 나는 자꾸 일하다 말고 창문으로 달려가 고라니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내가 숲의 아이라 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뭘 좋아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텐데.

“고라니~ 뭐하니~~ 바쁘니~~~? 거기 그렇게 앉아 있지만 말고 내려와~~~ 이쯤이면 우리, 저녁 식사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으려고 했는데, 우린 고기 먹고 넌 쌈 채소 먹자!

어때~~~

아 맞다! 너 콩잎 좋아하지!! 콩잎 차려줄게~~~

오늘 안 되면 내일 오전에 가볍게 차라도 한잔 어때~~~?

그것도 아니면 물~~~~ 물이라도 ~~~~~!!”

번개 치던 날

유희은

우르릉 쿵광! 그해 여름엔 비가 자주 내렸다. 그날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밤까지 예보되어 있었다. 날씨가 궂은 날이라 아이들도 하교 후에 참새 방앗간처럼 드나들던 친구 집 방문도 자제하고 집으로 곧장 들어왔다. 남편도 차가 막히기 전에 서둘러 퇴근하였는지 평소보다 1시간은 일찍 집에 도착한 날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두 아이는 요란하게 내리는 빗소리와 천둥소리가 무서운지 온 집안 창문에 블라인드를 모두 내려 두었다.

마침 얼마 전 읽은 동화책에 천둥·번개가 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잔뜩 쓰여 있던 게 떠올랐다. 요즘 드는 생각이 아이들 책을 통해 나도 배우는 게 참 많은 것 같다. 그중 집안에서도 배관의 물을 타고 전기가 이동할 수도 있으니 천둥·번개가 칠 때는 물 사용도 하지 말라는 구절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떠올랐다. 저녁 설거지를 미뤄 놓을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것이다. 모두 바깥에 잠잠할 때 후다닥 고양이 세수만 마치고 옹기종기 거실에 모여 앉았다. 벽 가까이도 위험하다며 거실 중앙에 그야말로 다닥다닥.

전자기기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었건만 에어컨의 시원함은 포기할 수 없었고 모두 그 내용은 머릿속에서 삭제할 듯했다. (아, 그 내용도 숙지했었더라면, 앞으로 발생할 많은 일들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을…….) 그 순간이었다. 설거지도 미루고 기분 좋게 아이들 옆에서 블록 장난감을 쏟아놓고는 한판 놀아보려던 순간.

간간이 내리치던 천둥·번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섬광이 집 주변에 번쩍하고 내리쳤다. 이 세상 불빛이 아닌 듯한 큰 불덩이가 우리 집 앞에 내리꽂혔다. 아이들이 귀를 막자마자 ‘쿠아앙 짹 쿠르릉’ 하고 굉음도 떨어졌다. 강렬한 빛만큼이나 소리도 웅장하여 굉음이 떨어진 뒤에도 마을에 우웅하는 파동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전기도 두 손을 들었는지 깜깜해졌다. 번개가 잠잠해지고 우리 집에서 가장 용감한 아빠가 두꺼비집을 열고 차단기를 올리자 짹하게 밝은 불빛이 온 집을 환하게 밝혔다. 전등의 불빛이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모두 함께 모여 있어서인지 다행히 아이들은 많이 놀라지는 않은 모양이다.

일단 주방부터 살펴보니 냉장고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열어 본 냉장고에는 불빛도 없이 조용히 시큼한 김치 냄새만 났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보일러 스위치에도 에러를 나타내는 알파벳 문자가 자기도 고장 났다고, 나도 좀 고쳐 달라고 그런다. 내일 아침은 찬물 샤워 당첨. TV를 틀어보니 파란색 화면만 나온다. 인터넷 기기가 망가져서 인터넷 티브이만 나오던 우리 집 TV에는 아무 신호도 연결되지 않았다.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기분. 그리고 보니 핸드폰의 와이파이도 사라져있었다. 혹시나 해 에어컨의 전원 버튼도 눌러본다. 다행히 전원은 켜진다. 휴, 다행이라고 하는 순간, 찬 바람이 안 나온다. 실외기가 고장 났나??? 아, 이 아이도 고장 났나 보다.

가까운 곳에 벼락이 떨어지는 불빛이 강렬했기에 이웃집들도 무사하지 않을 것 같았다. 주변 이웃들과의 단톡방에 서로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우리 집 말고도 피해를 입은 집이 대여섯 집은 넘는가 보다.

“다들 괜찮아요? 우리 집 벼락 맞았나 봐요.”

“우리 집도 보일러랑 인터넷이 나갔어요”

“티브이가 켜지지도 않아요”

여기저기 피해 상황들이 올라온다.

“우리 집은 인터넷 선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바로 눈앞에서 번쩍하고 내리쳤다니까요.” 이웃들의 무용담이 쏟아졌다.

우리 집의 상황은 여름이라 보일러는 급하지 않았으나 냉장고 고장은 그야말로 ‘멘붕’이었다. 냉동실의 음식들은 녹고 있는데 고쳐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올 때까지

지 기다려줄 것 같지 않았다. 특히 냉동실에는 나를 위한 유일한 사치품인 소중한 수삼이 잠자고 있었다. 수삼이 나오는 계절에 많은 양을 한 번에 구매해서 1채씩 소분 포장하여 1년 이상 두고두고 달여 먹는 나의 자양강장제이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에 SOS를 보냈다.

“혹시 냉장고에 공간이 되는 분 계실까요? 냉장고가 고장이 나 큰일이네요”

“우리 집에 냉장고 여유 있어. 얼른 갖고 와~!”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임에도 마을은 긴급사태 소식에 피해가 없는 집들도 비상 지원 모드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덕분에 녹고 있던 수삼 한 보따리, 어머니가 보내주신 생선 한 보따리가 이웃집으로 피난을 떠났다. “어휴, 어째 공간이 있었대요. 감사해요!” 이웃집 냉동실에 안전하게 입실한 것을 확인한 뒤에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아침이 밝자마자 부지런히 AS 센터에 연락했다.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인터넷 모두 가장 빠른 일정으로 고장 신고를 하였다. 1등으로 도착하신 건 인터넷 기사님.

“번개 치면 인터넷 선이 전기를 제일 잘 끌어와요. 공유기 교체하고 갈게요.” 통신선이 전기를 당기나 보구나. 이렇게 또 하나 배운다.

냉장고는 퓨즈만 나간 덕에 간단히 퓨즈 교체 후 정상상태로 돌아왔다. 큰 고장은 없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는 엔지니어분의 어깨가 괜히 올라가 보인다. 아직도 멀쩡히 잘 쓰고 있는 이 벼락 맞은 냉장고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와 같이 우리 집에 행운을 불러올 것 같아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

에어컨은 외부 실외기의 제어기가 타버렸고 보일러도 메인보드가 타버려서 수리비가 꽤 많이 들었으나 화재보험에 가입한 덕에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날 이

후로 화재보험 전도사가 되었다나 뭐라나)

일하느라 낮에 집을 비우는 이웃 언니는 제품들 AS 받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럴 때도 단톡에 “누구 마을에 있는 사람?” 한마디에 “저 그때 시간 돼요~기사님 오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이 마을에 이사 와서 라면, 마늘, 참기름까지 나눠 봤지만, 냉장고 공간까지 나눌 줄이야.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마을엔 ‘단톡방 찬스’가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집 하수구가 막혔어요~ 혹시 잘 해결해 주시는 곳 알 수 있을까요?”라고 올리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웃들이 줄줄이 연락이 온다. 업체 연락처는 물론이고 직접 해결했던 수많은 경험담과 민간요법(?)까지 줄줄이. 과탄산소다(1컵)+구연산(반 컵)+베이킹소다(반 컵)를 넣고 뜨거운 물 반 컵. 다음날 뜨거운 물 부어주면 시판되는 하수구 뚫는 약보다 낫다는 이웃 언니의 특급 처방.

벼락 맞은 날 집 나갔던 수삼은 어떻게 되었냐고? 다음날 집 나갔던 상태 그대로 고이 집으로 돌아왔다. 괜히 아껴먹다 못 먹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오자마자 한 채 꺼내 약탕기에 올린다. 소중한 수삼도 지켜준 정말 소중한 나의 이웃이다.

[인터뷰] 주택에 살고 싶으세요?

정리 신나리

우리 마을에 놀러 온 지인들은 집과 마당을 보며 부럽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사 오세요!”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집을 알아보기도 하지만 씩씩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젓기도 한다. 푸른 잔디밭,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집, 캠핑이 부럽지 않은 마당 즐기기과 꽃으로 가득 찬 정원은 좋아 보이지만,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손사래를 친다. 마을에서 이웃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하기도 하고,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낮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기도 한다. 그래서 주택 살이와 마을 살이에 대해 다섯 명 글쓴이들의 조언을 모아 정리해 보았다.

***주택 살이라고 하면 마당에서 하는 바비큐 파티부터 떠올린다. 얼마나 자주 하는가.**

(한진) 입주했을 당시엔 매주 구워 먹었던 걸로 기억한다. 입주 초기엔 어느 집에서 고기 냄새가 나면 다들 반찬과 고기를 들고 모였다. 어쩔 땐 열 집이 모이기도 했다.

(김세훈) 아이들이 어릴 땐 매일 캠핑하는 느낌이라 정말 많이 했지만, 아이들 학년이 높아지고 엄마아빠도 일이 많아지니 시간을 맞춰 바비큐를 하기가 힘들어졌다. 다 때가 있는것 같다.

(한진) 몇 년간 잘 하지 않다가 코로나로 집콕을 하게 되며 밤마다 불을 피웠다. 식구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바비큐 할 여유도 생겨났다. 바비큐를 즐기려면 때, 여유, 시간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마당 관리는 부지런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최정애) 불만한 마당을 가꾸려면 잡초가 눈에 보이는 즉시 뽑는 게 좋고, 한여름에는 피약별을 피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돌봐야 한다. 퇴근 후 많은 시간을 마당 관리에 쏟아 부어야 할 때도 있다. 대부분 잔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왔다가 손이 많이 간다는 것을 알고 파쇄석으로 깔거나 데크로 바꾼다.

그러나 마당 관리도 성향에 따라 ‘정성 파’와 ‘방치 파’로 나뉠 수 있다. 번거로

워도 화초를 가꾸고 보는 것이 좋으면 기꺼이 힘과 시간을 들이게 되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야생화만 남기고 채소도 심지 않고 기본만 해두고 사는 이들도 있다. 너무 겁먹지 말고, 또 너무 욕심도 내지 말고 각자 스타일에 따라 하면 된다.

(김세훈) 마당의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지런함은 필수인 듯하다. 우리 집의 경우 6년째 흙마당을 유지하며 농약 사용도 안하고 연못까지 관리하다 보니 출퇴근길에도 주말에도 수시로 돌봐줘야 한다. 할 일은 많지만 내가 움직이는 만큼 마당은 행복 발전소가 되어주니 꼭 한번 가꿔보시길 바란다.

***아파트와 주택, 겪어보니 어떤 점이 좋고 나쁜가.**

(유희은) 다들 아파트만큼 편리한 곳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나는 일 때문에 얼마 전에 더숲을 떠나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오히려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와 보니 생각보다 편리하지 않았다. 아파트는 문만 열면 다 연결이 된다. 아파트는 ‘공동 주택’이기에 그만큼 붙어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관리실이 있어서 편리하지만, 관리비가 비싸다는 단점도 있다.

(최정애) 주택이 2, 3층으로 되어 있어 계단을 오가는 일이 번거롭다고 하지만 1층에서만 살다 보면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기도 하다. 다만, 주택은 마당 관리나 숲 근처에 있어서 높은 습도 때문에 생길 곰팡이 문제로 잔손이 많이 간다.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외벽을 칠하거나 집을 고치면서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 다행히도 ‘더불어숲’은 주택 치고는 단열이 매우 좋은 편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향이 좋을 경우엔 아파트보다도 따뜻하고 겨울철 난방비도 10만원 대이다.

(모두)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주택’이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무조건’ 주택이 좋다. 단, 새, 고양이, 쥐 등의 동물, 나방, 모기, 개미, 돈벌레 등의 다양한 벌레와도 친해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웃들과 너무 가까우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까. 또는 이웃들과 친해지는 방법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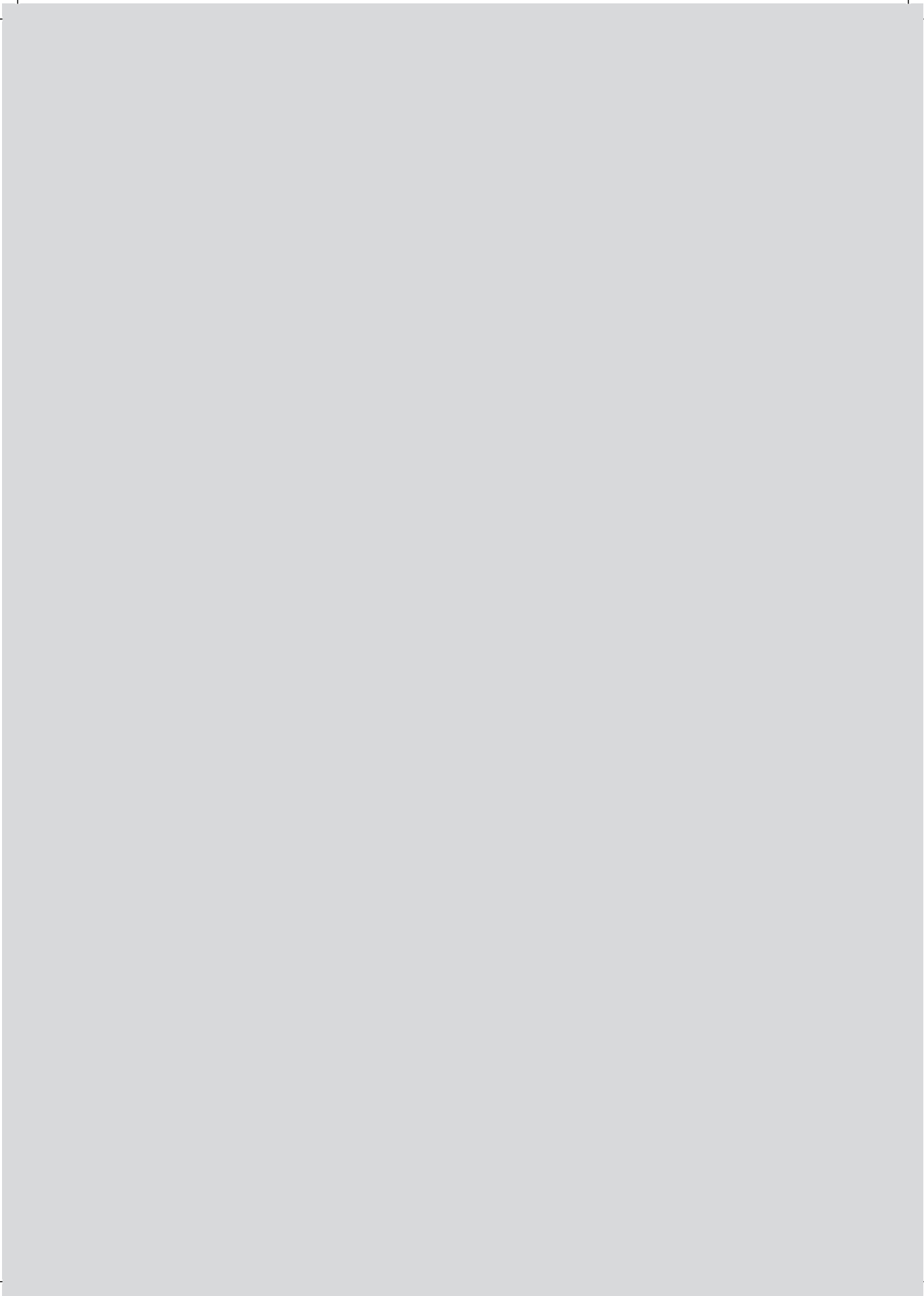
(최정애) 주택이 은둔하기에 더 좋다. 아파트는 나가면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만나지만, 주택은 내 마당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만날 일이 적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더블어숲’은 불쑥불쑥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시골 마을과는 전혀 다르다. 아파트와 마을 중간의 느낌으로 이웃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공존이 가능하다.

(김세훈)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하니 멀리있는 친구보다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크니 더 없이 좋은 마을이고,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다.

(유희은) 이웃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다. 마을 산책을 자주 나가다 보면 오며 가며 익숙해지는 얼굴들이 있다. 또 마을 청소와 같은 활동에 적극 참여해보자.

***매매 할 때 환금성이 좋지 않을까 걱정된다.**

(모두) 최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비해 주택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더블어숲 주민들은 대부분 집을 투자 가치로 보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기준에 의해 선택했다고 말한다. 몇 억씩 오른 아파트가 부러울 때도 있지만, 여긴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다. 자연과 함께 마당 있는 주택에서 사는 시간은 아파트 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보상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한다. 내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다.



2부_ 마을에서 함께 살다

물놀이의 계절

한진

물놀이의 계절이 돌아왔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더위가 주춤하는 9월 중순까지 집마다 물놀이하느라 마을 전체가 시끌벅적하다. 마을 입구에서 우측으로 길 따라 올라가면 특 튀어나온 집이 있다. 이곳에 오르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기에 전망대로 통하는 207동 우리 집!

아침부터 깔깔깔 웃음소리가 들려 데크에 나가보았다. 403동에서는 유아용 작은 풀장을 펴놓고 아가가 풀장에 들어가 첨벙첨벙 물놀이하고 있고 10명은 너끈히 들어갈 수 있는 초대형 풀장을 설치해 놓고는 호스 한 개로는 부족해 옆집 호스까지 동원해서 물을 채우고 있는 204동도 보인다.

집 앞을 지나다 수영장 설치된 걸 발견하고는 한걸음에 달려와 합류하는 아이들, 생일모임 물놀이 파티를 하는 7세들, 새로 들인 수영장을 설치했다며 온 동네 4학년 다 초대하는 이웃까지 더불어숲의 여름은 아이들에게 신나는 놀이터다.

수요일 오후 2시 전화벨이 울렸다.

“언니 애들 수영복 입혀서 3시까지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수영장 물 받고 있어요.” “고마워~ 내일은 우리 집 수영장에 물 받아 놓을게!”

“야호!!”

아이들은 수영복 갈아입으며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린다. 그 사이 아이 편에 보낼 간식거리 찾느라 냉장고, 싱크대 여기저기 뒤져본다. 냉동실에서 발견된 백설기 당첨! 전자레인지에 급히 해동시켜 아이 편에 들려 보낸다.

삼삼오오 노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느낀 엄마들이 뭉쳤다. 8월 5일 오후 8시 마녀회(마을 여인들의 모임) 운영진이 모여 제대로 판을 키워보기로 한 것이다. 급히 행사 시간, 장소, 준비물을 정하고 마을 단톡방에 공지했다.

<8.15 더블어숲 물놀이! >

- 장소 : 더숲놀이터
- 일시 : 8.15 오후 2시
- 준비물 : 개인 물총

마을 단톡방에 공지를 해놓고는 행사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물총놀이 행사이지만 광복절에 모이는 것이니 뭔가 광복절 의미를 되새길 만한 퍼포먼스가 필요했다.

“참가하는 분들에게 태극기를 하나씩 나눠주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그 태극기를 들고 마을 한 바퀴 돌고 행사를 시작할까요?”

급히 결정되었지만 아주 흡족해하며 행사 준비를 이어갔다. 물풍선 던지기, 워터 슬라이드, 물총 싸움, 박 터뜨리기로 행사 프로그램을 정하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행사 하루 전 8월 14일 물풍선, 태극기 등 주문한 물품들이 일정에 차질 없이 모두 배송되었다. 하지만 행사 하이라이트인 박 터뜨리기에 박이 해결되지 않았다. 아무리 찾아봐도 파는 곳을 발견할 수 없었다.

마녀회 회장님은 운영진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박을 직접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마침 총무님 집에 커다란 파란색 소쿠리가 하나 있었다. 그걸로 박을 만들면 좋을 거 같았다. 하지만 박을 만들려면 똑같은 소쿠리가 하나 더 필요했다. 시장에 가서 같은 제품의 박을 사려다가 혹시 몰라 급히 집에 가서 창고를 뒤졌고 똑같은 크기의 소쿠리를 찾아냈다. 기쁜 마음에 총무님께 전화를 걸었다.

“저희 집에 똑같은 소쿠리 있어요. 찾았어요. 소쿠리 들고 바로 갈게요!”

온갖 물품과 재료들이 가득한 총무님 집에 모여 지름 70센티 정도 되는 커다란 박을 만들기 시작했다. 크기가 같은 소쿠리 두 개를 케이블 타이로 연결하고 그 안에 공기를 주입한 작은 풍선들을 채워 넣었다. 겉에는 한지를 여러 겹 붙여서

물에 충분히 적으면 소쿠리가 벌어지면서 풍선들이 나오고 ‘8.15 더숲 물놀이’가 적혀있는 현수막이 박 아래로 펼쳐지도록 만들었다.

8. 15일 행사 당일!

물풍선을 만들고 행사장을 꾸미기 위해 1시간 전부터 모여 준비를 시작했다. 행사장 앞집에 사는 시원이네서 호스를 제공해 주셔서 수영장에 물도 채우고 워터 슬라이드도 완벽히 준비되었다. 페트병으로 만든 작은 물통을 든 아이부터 어깨에 메는 가방 모양 커다란 물통을 매고 온 어른들까지 행사장은 한바탕 물놀이를 즐기려고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

행사가 시작되었고 태극기를 하나씩 받아 든 아이들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왔다. 얼굴이 벌겋게 익은 아이들은 준비해 온 물총을 꺼내 들고 쏘아대기 시작했다. 물풍선 코너에서는 인간 과녁이 된 아빠들을 향해 엄청난 세기로 물풍선을 던지는 엄마들 때문에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

어린아이들은 물 미끄럼타기에 흠뻑 빠져 몇 번이고 줄을 서서 신나게 미끄러지며 내려왔다. 물총으로 시작된 행사에 물바가지가 등장했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나중에는 커다란 물통까지 동원되어 놀이터는 물바다가 되었다.

마지막에는 호스를 들고 물을 뿌려대는 이웃까지 등장해 행사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드디어 행사 하이라이트인 물총 싸서 박 터뜨리기 시작되었다. 엄마들이 야심 차게 준비해 둔 박을 터뜨리기 위해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물총을 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무리 싸도 꿈쩍하지 않는 박 주변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 물총을 쏘아댔다.

박을 준비한 엄마들은 10분이 다 되어도 터지지 않는 박을 보며 마음을 졸였다.

“총무님 이쯤 되면 박이 터져야 할 거 같은데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게 아닐까요?”

“회장님 큰일이에요! 박이 안 터져요!!”

마음 졸이며 대화를 나누던 그 순간 드디어 박이 터졌고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한여름 신나는 물총놀이 이벤트는 끝났지만 집마다 펼쳐지는 물놀이는 계속된다. 피약별에 땀 뻘뻘 흘리며 5시간 넘게 물을 받았는데 오늘은 아이들이 20여분 놀더니 지루하다며 거실로 들어왔다. ‘물 한번 받으면 길어야 이틀 사용 가능한데 정말 너무 하네…….’ 더위에 지친 나는 혼잣말로 구시렁대며 어떻게든 물놀이를 더 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제안을 던져본다.

“1시간 더 놀다 들어오면 영화 보여줄게!”
“싫어 어제도 물놀이해서 오늘은 재미없어.”
“옥수수 다 삶아지는 동안만 더 놀다 들어와~”
“배불러서 옥수수 안 먹을 거야!”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할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했다. 그때 마침 거실 한 칸에 있는 어항 속 물고기와 눈이 마주쳤다. 바로 저거다! 물고기와 함께 수영을!!

“그럼 물고기와 함께 수영해 볼까?”
“우와! 좋지, 좋아! 플라티와 네온테트라 두 마리씩 넣어줘.”
“하울이 언니~ 엄마가 수영장에 물고기 넣어준대! 얼른 화장실에서 나와 봐~”
씻으려고 수영복을 벗으려던 둘째가 함박웃음을 지으며 거실로 왔다.
“엄마! 정말 플라티 넣어줄 거야?”
“응! 넣어 줄테니 같이 수영해~ 대신 수영장 안에서 물고기 잡거나 힘들게 하면 안 돼! 약속 지킬 수 있으면 시작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물고기 요 녀석들이 눈치를 챘는지 영 잡히지 않는다. 아이들 실망하게 하면 안 되는데 큰일이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두 마리 잡아서 수영장 안으로 넣어줬다. 신

이 난 아이들은 물고기와 함께 수영하기 시작했고 물고기와 수영 대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다 삶아진 옥수수를 챙기러 주방에 들어간 사이 막둥이가 몰래 물고기 잡으려 다가 나한테 딱 걸렸다.

“오늘은 그만 놀아야겠다. 물고기 잡지 않기로 했는데 잡았잖아.”

“엄마~아니야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보려고 한 거야. 그러니 더 놀 수 있게 해줘!”

결국 손끝, 발끝이 퉁퉁 불어서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어서야 물 밖으로 나왔다. 코로나19 시국에 워터파크는 꿈도 못 꾸지만 마당 안 작은 풀장에서 워터파크 못지않은 놀이들로 여름을 채워본다.

마을에서 자란 아이

유희은

“나도 같이 놀아도 돼?”

“안돼. 너한테 줄 역할 없어.”

큰아이가 6살 때 유치원에서 번번이 놀이에서 거절당하고 왔다. ‘그걸 꼭 물어야 하나’ 싶기도 했고 ‘그럼 다른 애들이랑 놀면 되지’ 싶기도 했는데 그게 아이 에겐 힘이 들었나 보다. 거절당하면 친구들 주변을 빙빙 돌기만 했다. 당시에 손가락 빨기도 심했고 소변도 너무 자주 봐서 한의원에도 다녔는데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다. 고민하는 나에게 회사 후배가 말했다. “선배, 상담을 한 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그렇게 심리상담센터를 예약하고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아이가 불안감이 높아요. 애정결핍적인 소양도 보이네요. 자기감정을 억압하고 있고요.”

6살짜리 아이가 감정 억압이라니. 맞벌이였지만 남편과 내가 출근한 시간에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보살펴 주고 있었고 퇴근 후와 주말에는 늘 아이들과의 시간으로 일정을 채웠다. 부족함 없이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애정결핍이란 말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선생님도 내 눈빛을 읽으셨는지 “아이마다 다 달라요. 요구하는 관심과 사랑의 크지요. 똑같이 사랑받은 아이들도 어떤 아이는 충분하다 느끼고 어떤 아이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매주 큰 아이와 둘이서만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라며 다독이셨다.

심리센터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연스레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엄마와 둘이 있는 시간을 너무나 즐거워하는 큰아이를 보며 동생으로 인한 스트레스였을까, 나의 양육 태도에 문제였을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때는 육아도 회사 일처럼 정확한 날짜에 예방 접종을 마치고 좋은 재료로 나이에 맞는 식

단을 짜고 유치원을 보낼 때면 주변 유치원을 모두 분석하여 아이와 잘 맞는 유치원을 찾아주면 그러면 육아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정작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이 부족했던 것이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저릿한 날들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하는 차 안 라디오에서 전원주택 광고가 나왔다. ‘도시농부? 용인? 타운하우스? 그럼 출퇴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주말에 당장 남편을 보쳐서 분양 현장을 찾았다. 모델하우스라고 해봤자 공사 현장에 한 채를 먼저 지어놓고 견본주택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미 내 마음에 이 집이 쑥 들어와 버렸다. 이층 집에 3층 다락, 많은 계단(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나의 강제 운동 코스), 텃밭과 정원……. 늘 꿈꾸던 딱 그런 공간이었다. 그때가 12월. 이듬해 완공이라 큰아이 초등학교 입학 전이니 시기적으로도 딱 맞아 떨어졌다.

요리를 좋아하는 나는 텃밭과 넓은 주방을 꿈꿨다. 마당은 아이들의 놀이터로 꾸미고 싶었다. 2층 계단 아래에는 책을 잔뜩 꽂아놓고 아이들과 계단에 걸터앉아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는 상상을 했다. 견본주택을 보고 온 날 종일 들떠 있었다. 이주를 결정하는 데는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분양받고 입주까지의 10개월은 우리 가족에 맞는 집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 나름대로 공대 출신이라며 학교 때 배운 도면 그리는 툴을 설치하고 도면을 수정해 갔고, 원하는 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출근 전 새벽에 공사 현장을 들러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그야말로 과정이 주는 설렘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였다.

남편은 주택 살이 준비로 목공을 배우고 10명은 둘러앉을 수 있는 6인용 식탁을 직접 제작하기 시작했다. 퇴근 후 3시간씩 짬짬이 작업하여 6개월의 제작 기간이 걸린 이 식탁은 두고두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우리 집 보물이 되었다.

우리는 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와 함께 나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다.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 1년간의 육아휴직을 낸 것이다. 큰아이의 초등학교 시작을

함께하고 싶었고 아이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한 나의 큰 결심이었다.

마을은 140여 가구의 주택으로 이루어졌는데 산아래를 빙 둘러 1단지와 2단지, 4단지가 있고, 중간에 3단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우리는 2단지인데 3단지와 10m가량 폭의 도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골목은 아이들이 첫 자전거를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고 눈이 오면 눈싸움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뛰어놀 수 있는 골목을 사랑했고 그보다 더 친구 집을 사랑했다. 마을에는 같이 놀 아이들이 많았고 나이가 똑같은 필요도 없었다. 그 시간에 나와 있으면 그냥 같이 놀 수 있었다.

입주 시기에 5살, 7살이던 두 아이는 유치원이 끝나면 늘 골목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놀았다. 골목에서 만난 친구들은 놀잇감이 많은 집을 선택해서 놀기도 했고 자기 집이 선택받지 못하면 속상해하기도 했다. 그러면 엄마는 슬쩍 간식을 미끼로 아이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다. 늘 다른 친구 집에서 우리 아이가 받은 융숭한 대접에 감사하는 마음이었기에 아이 친구들이 방문하는 날이면 나도 인기 있는 친구 엄마가 되기 위해 꽤나 신경을 썼더랬다.

놀 친구를 찾다가 놀 친구가 없어 이웃집 벨을 누르고 “명규 있어요?”하는 큰 아이에게 “명규 지금 없는데?”하는 옆집 아저씨. “그럼 저 티비 좀 보고 가도 돼요?” 했다는 얘기에 우리 집 티비가 좀 작긴 하지 하며 민망하다가도 헛웃음이 나왔다. 그러고는 30분가량 옆집 아저씨랑 둘이 티브이를 시청하고 귀가했다는 결말에 이 엉뚱한 아이가 진짜 내 아이의 모습인지 신기하기까지 했다.

날씨가 좋은 계절에 “찬이네 마당에 불 피웠대.” 하면 이집저집 맥주캔이랑 안줏거리 찾아들고 모여서는 모닥불에 둘러앉아 아이들은 마시멜로 구워먹고 마당에서 춤도 추고 그랬더랬다. 그렇게 뜨거운 밤들을 추억들을 쌓았다.

큰아이는 걱정한 것처럼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학교에 가면 집에 언제 가는지를 물었고 교실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통에 교실 문 앞에서 들어가고 싶을 때까지 서 있는 것이 일과였다. 두세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30~40분이 걸리기도 했다. 실내화를 갈아 신는 학교 현관에서 수많은 엄마가 등교하는 아이들과 웃으며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 아이와 나는 그저 우두커니 서 있었다. 엄마들의 눈빛은 어떻게든 아이를 학교에 들이지 못하는 무능한 나를 질책하는 것 같았다. 직접 아이에게 “친구들 다 들어가는데 너도 같이 들어가자.”며 손을 이끌기도 했다.

그 시기 담임선생님은 아이의 상태에 대해 꽤 극단적으로 이야기했고, 남편은 아이를 1년 뒤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자고도 했다. 인생에 있어서 1년은 그리 긴 시간도 아니라고 했다. 더 오기가 났다.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 최선이라는 것은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속으로는 불안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큰 수행이었다. 심리센터에서 놀이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는데 퇴행성 행동이 심해지더라도 받아주어야 하는 시기라고 하셨기에 주변에서 무어라고 하던 아이에게 따뜻한 애정을 쏟으며 아이의 빈 마음을 채우는 데 집중했다.

두세 달이 지나자 이웃집 언니, 마을 친구들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그렇게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다. 아이가 학교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학교 화장실을 처음 갔는데 현경이가 같이 갔다는 이야기, 남자아이들 중 웃긴 표정을 잘 하는 아이가 있는데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를 조잘조잘해주었다.

손가락을 빠는 습관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야 조금씩 사라졌는데 대신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다. 여전히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시시때때로 시험 일정을 확인하며 불안해하지만, 불안감 때문에 학교 가기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5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뜸 외모와 부에 따른 사회 불평등이 싫다며 밤새 불만을 토로하다 아침에 학교 가기를 거부한 적도 있었으나 잘 달래서 2교시에 극적으로 등교를 시킨 적이 있었다. 그런 소소한 등교 거부 사태들 속에서도 “무단결석” 없이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였다. 코로나 시국을 기점으로 더 이상 학교 가기 싫다는 얘기는 전혀 들을 수 없었고 매일 학교 가면 정말 좋겠다는 즐거운 노랫소리를 듣는다.

전쟁터에 나가듯 치열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육아휴직이었는데 육아휴직을 마

칠 때 쯤엔 딱딱했던 내 마음이 말랑해져 있었다. 아이를 기다려주는 그 시간을 보내며 나에게도 여유가 생겼달까. 이듬해엔 남편이 1년간 육아휴직을 냈는데, 늘 아이에게 완강한 태도를 보이며 제멋대로 구는 아이에게는 훈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남편은 1년간의 세월 동안 제법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1년간의 육아휴직 동안 남편의 가장 큰 불만은 ‘녹색어머니회’라는 명칭 같은 것이었다. 많은 엄마들 속에서 주양육자로 등장한 아빠도 여러 상황에서 꽤 차별받는 기분이었던 모양이다.)

그다음해 나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냈고 그렇게 일상을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알게 되었다. 아이에 관해 내가 주로 결정하던 이전과는 달리 남편의 육아휴직 이후에는 저녁 찬거리부터 아이 병원, 학원과 같은 모든 것을 함께 고민하는 동지가 되었다.

또 우리에게 누구보다 든든한 이웃들이 있었다. 아침부터 아이와 티격태격하고 속이 잔뜩 상해 이웃 엄마들과 얘기하다 보면 나보다 아이를 잘 이해해 주며 아이 속마음을 바라봐 준다. 어떤 때는 내 편을 들어주며 폭풍 수다를 떨다 보면 아이 하교 전에 마음이 풀어져 버리기도 했다. 우리 아이보다 한두 살 많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아이도 저런 날이 오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해보기도 하고 같은 또래 아이의 비슷한 문제를 마주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고민해 보기도 했다. 마을에서 육아를 하며 받는 가장 큰 수혜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신나게 뛰어놀며 자라 지금은 중학생이 된 큰아이. 우리 아이들은 마을속에서 자랐다. 엄마보다 마음이 잘 통하는 이모도 있고, 새로운 놀이로 마음을 사로잡았던 언니들, 컴퓨터 게임의 대가인 이웃집 오빠, 너무나 잘 뭉쳐 놀아서 늘 끼고 싶은 동생들……. 늘 한 가족같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살피 주었던 이 모든 이웃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웠다.

다같이 돌아, 동네 한 바퀴

김세훈

“띠디디디 띠디디디”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아침잠이 많은 중년의 여인은 오늘도 교관 같은 알람의 도움을 받아 찌뿌둥한 아침을 연다. 아이들에게 아침밥은 7시 30분까지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지각이다.

침대를 떨치고 곧장 책상으로 간다. 물잔을 들어 밤새 마른 입을 축이고, 이내 수분이 공급되며 정신도 기지개를 켜면 앞에 내려져 있던 커튼을 활짝 열고 책상 넘어 골목길을 확인한다. 언제 봐도 탁 트여 시원한 우리 동네 넓은 골목길.

역시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 골목길엔 우리 마을 ‘꽃중년’ 언니들이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몇 년을 저렇게 ‘뚜벅뚜벅’ 그저 골목길을 따라 걷고 계신다. 때때로 인원이 달라져 어떤 날은 두 명, 어떤 날은 세 명, 그러다가 어떤 날은 다섯 명이 일렬횡대로 화려한 직선을 그리며 걷기도 하신다.

인원이 많은 날엔 오래된 홍콩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바바리 깃을 세운 남자 주인공이 그의 일행들과 바람을 가르며 골목을 걸어 나오던 바로 그 장면처럼, 째하게 빨간 외투를 허리에 묶고 몸빼 바지를 휘날리는 언니들의 모습은 영화 속 그들처럼 카리스마가 폭발하기도 한다. 오늘은 세 명. 오붓해 보인다.

내 침실은 2층에 있다. 책상도 마을 길이 정면으로 보이는 넓은 창 바로 앞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해도 시선은 금세 전경을 부유하게 된다. 뭉게구름이 움직이는 하늘, 울타리에서 나무로 비행을 반복하는 새들, 바람을 타고 여행 중인 잔디광장 쓰레기까지. 당연히 집 앞 골목길을 지나는 차나 사람, 강아지, 고양이, 시력이 허용하는 모든 것들을 선택의 여지 없이 보게 되곤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빛 좋은 아침 언니들의 운동 풍경은 손에 꼽을 만큼 좋아 보이는 풍경이다.

우리 마을은 동그란 형태의 숲속 마을로, 원을 그리는 넓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같은 모양의 집들이 빼곡히 있다. 산에 지어진 마을이라 마을 입구 쪽의 지대와 안쪽 집들의 지대는 차이가 크게 난다. 그러므로 원을 그리며 이어지는 동그랗고 넓은 길은 오르막도 평지도, 내리막도 있어서 걷기 운동을 하기에 꽤 효과가 좋은 최적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초지일관 평지가 아니니 한 바퀴만 돌아도 숨이 차오르고 세 바퀴쯤 돌면 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게 되어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확실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장이 되어주는 것이다.

골목길의 구조가 이렇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수시로 동네 한 바퀴를 한다. 꽃중년 언니들처럼 몇 년째,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운동을 하시는 ‘일편단심 동네 한바퀴형’도 여럿 되시고, 나처럼 작심은 했으나 무거운 몸이 정신을 지배하여 자꾸 흐름이 끊기는 ‘작심삼일형’도 많다. 또 반려견과 규칙적으로 산책을 나오시는 ‘착한 견주형’, 그 중에는 반려견 두 마리의 긴 줄을 허리에 묶고, 손에 든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도 흔들림 없이 전진하시는 ‘시몬스형 책사랑님’도 볼 수 있다. 물론 이 밖에도 부부가 손을 꼭 잡고 걸으시는 ‘너는 내 운명형’, 온 가족이 다 함께 ‘단란한 가족형’, 친구끼리 편의점에 들러 군것질을 목표로 하는 ‘우정은 편의점을 타고형’등, 많은 유형의 동네 주민들이 이 동그란 골목길을 따라 매일매일 돌고 돈다.

다들 어떤 마음으로 걷기운동을 하시는 걸까, 저마다 나름의 이야기를 갖고 계실 테지만, 내 경우엔 그저 걷는 행위 자체가 좋아서 혼자 걷는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한 식욕의 참사로 음식이 목까지 찻을 때는 남편과 동행하기도 한다. 어슬렁어슬렁 한두 바퀴라도 걷고 나면 그제야 소화도 되고, 내 몸을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했다는 편협하지만 조금은 정당한 합리화를 찾으며 몸도 마음도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다. 어쩌다 걷기 일행이 여럿이 되는 날에는 화장실 못지않은 창조

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서로에게 귀를 열고 남편, 자식, 정치, 사회, 고민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목 도모는 물론이거니와 삶의 새로운 의욕도 샘솟게 되니 말이다.

골목을 걷는 느낌은 때마다 새롭다. 그 새로움은 마을에 담긴 사람들과 시간. 계절에 따라 모두 다른 색깔, 모두 다른 향기, 모두 다른 소리를 가진다. 동이 틀 무렵에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집들이 고요한 적막 속에서 분주함을 뽐어낸다. 아이들과 남편이 각자의 영역으로 가고 난 뒤에는 뜨거운 햇빛이 기미를 불러 유감스럽긴 해도 꽤 큰 해방감을 준다. 해가 질 무렵에는 후각을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가 골목을 점령하기도 하며, 차들이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채워가는 모습도 활기차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캄캄한 밤에는 어떨까. 집마다 작은 창문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고, 가끔은 귀여운 아이들의 말소리가 골목까지 밤마실을 나오기도 한다. 더없이 편안한 휴식과 따뜻함의 골목길이다.

‘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보고 나팔꽃 인사합니다
우리도 인사하며 동네 한 바퀴... ’

동요의 정겨운 노랫말이 저절로 입에 붙는 건기 좋은 마을.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넉넉한 이 골목길을 따라 마을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서로에게 다가간다. 꾸준히 걷기운동을 하시는 꽃중년 언니들과 여러 이웃들의 좋은 기운이 온 마을에 스며든다.

라이크북 여행 일기

유희은

다양한 마을 활동에서 마을 엄마들의 숨은 능력치는 늘 빛을 발했고 이런 엄마들과 함께 육아 공동체를 꾸려보고 싶었다. 그러던 중 마을 언니가 책장 공유라는 아이디어를 주었다.

"집마다 꽂혀있는 애들 책, 동생까지 읽힌다고 엄청 이고 지고 있잖아. 그런 책 이웃들과 공유하면 애들 책 다양하게 읽힐 수 있고 좋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집에 꽂혀 있는 아이들 책을 서로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엄마들이 모였고 아이가 재미있게 읽은 책을 카페 글로 추천하면 댓글로 대여를 요청하여 서로 빌려보는 방식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같은 단지 내 아이들이라 서로 문고리에 책을 넣은 가방을 걸어두거나 우편함을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책이 오갈 때는 조그만 간식 선물도 따라왔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며 아이들은 책을 빌리는 재미가 생기고 자연스레 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아이들이 책을 좋아했으면 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담아 책장을 공유해 보기로 한 이 모임은 "우리 동네 소셜 도서관 라이크 북"이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모임을 계기로 마을의 엄마들이 모이게 되었고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던 중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2018년 우리 모임은 '따북 공동체 지원 사업'에 '아이와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교육'으로 지원 받게 된다.

마을에 사는 반짝반짝 빛나는 능력을 갖춘 많은 이들이 아이들에게 직접 경험을 전해주고 나누는 계기가 생긴 것이다. 산에 둘러싸인 환경을 이용하여 생태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웃들이 자신의 직업 경험을 아

이들과 나누는 ‘직업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골목에서 전래놀이를 알려 주고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즐길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기도 했다. 부모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가족여행도 떠났다.

첫해에는 당일치기 여행이었다. 15가족 정도 되는 인원이 움직이다 보니 대형 버스 2대가 필요했다. 봄에는 강화도로 역사 여행을 떠나고 가을에는 문학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양평에 갔다. 강화도로 떠나기 전에 아이들은 미리 방문할 곳을 조사하고 스크랩했다. 보문사, 역사박물관, 자연사 박물관을 미리 살펴본 아이들은 강화도 여행 내내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아는 체를 했다. 민머루 해수욕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마셨던 맥주 한 캔의 맛이란. 공동육아가 주는 자유를 얼마나 아빠들도 즐길 수 있었다.

가을에는 양평에 있는 황순원 문학관에 들러 아이들은 소나기 속 주인공이 되고 우리는 학창 시절 읽은 소나기를 추억하며 소설 속에 빠져들었다. 세미나에서 먹은 연잎 핫도그가 얼마나 크고 맛있었는지 가을 여행에는 미처 참여하지 못한 아빠에게 아이들이 어찌나 자랑했는지. 아직도 그 핫도그가 그렇게 맛있더냐? 하며 나도 가고 싶다고 짹짹대는 남편. (아직도 맛보지 못해 아쉬워한다.)

두 번의 당일치기 여행은 너무 즐거웠지만 아쉬움이 남았다. 좀 더 실컷 놀고 싶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1박 2일로 가면 좋겠다며 또 다른 여행을 꿈꿨다. 운 좋게 2년 차 사업에도 지원을 받게 되며 1박 2일 여행은 현실이 되었다.

이번에는 ‘환경 에너지 여행’이었다. 여행지는 영흥도와 대부도로 에너지파크와 갯벌 체험이 주요 일정이었다. 화창한 6월의 토요일 아침. 총 14가족 51명의 설레는 여행 날. 아침 7시 30분까지의 집결 시간은 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을 부산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 버스 여행이 신나 종알종알 쉴 새 없이 수다가 이어졌다.

첫 도착지는 ‘영흥 에너지 파크’. 오픈 시간에 맞춰 도착한 에너지파크에서는 단체관람 프로그램으로 친환경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서 쉽게 알려주셨다. 전날 야근으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따라나선 예원 아빠의 연신 꾸벅이며 즐고 있는 모습은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게 소란스러운 속에서 어떻게 그리 주무시는지 재미있기도 했다.

숙소는 대부도에 있는 대형 펜션을 빌렸다. 50명 이상 충분히 머무를 수 있었고 커다란 운동장이 앞마당이었으며 갯벌까지 걸어서 갈 수 있었다. 물 때가 맞아야 할 수 있는 갯벌 체험이었기에 이른 점심 도시락을 먹고 숙소로 이동하여 짐을 풀었다. 아이들은 갯벌 체험을 위해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길을 나섰다.

드디어 갯벌에 도착!

갯벌에 부드럽게 발이 빠져들었다. 미끈하면서도 적당히 감싸주는 그 느낌은 무척 매력적이었다. 이미 수영복을 입은 유아들은 몸이 느끼는 대로 갯벌에서 뒹굴기 시작했다. 큰아이들은 여기저기 갯벌을 파며 갯벌 생물들을 염탐했다. 물 빠진 갯벌에서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망둥이를 따라다니고 순식간에 구멍 속으로 쏙 숨어버리는 게와 함께 숨바꼭질했다. 아이들은 갯벌이 가지는 유연함을 만끽하며 물이 빚어놓은 골짜기에서 미끄럼틀을 타기 시작했다. 수영복을 준비하지 못한 초등학교 아이들도 자연이 준비해 놓은 미끄럼틀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갯벌에서 같이 뒹굴기 시작했다. 여벌 옷을 미처 준비 못한 아이 엄마의 불멘소리도 아이들을 자제시키진 못했다.

갯벌 탐험 후 벗어놓은 아이들 옷의 갯벌 자국은 빨랫비누로 야무지게 비빈 손빨래로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돌아온 아이들을 씻기는 일은 일사불란하다. 엄마들 여럿이 마치 미리 입을 맞춘 양 각자의 자리에서 씻기고 닦이는 일이 나뉘어 착착 진행되었다.

피곤할 법도 한 일정이었지만 우리에게겐 운동장같이 넓디넓은 펜션 앞마당에 운동회가 준비되어 있었다. 신발 멀리 던지기, 풍선 받기, 꼬리잡기, 훌라후프 던져서 몸으로 받기, 이인삼각 달리기……. 모두 나열하기도 힘든 이 많은 게임과 상품 준비 또한 얼마나 신이 나서 했었던가. 현역 교사이신 풀이네 아버님의 재능기부로 프로그램 진행 역시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너무 힘들어 그만하자 할 줄

알았더니 청팀, 백팀으로 나뉘어 팀 대항으로 하는 게임에 엄마, 아빠들이 더 열성이다. 운동회가 끝나자 실내에서는 아이들 게임이 연이어 진행되었고 아빠들은 커다란 바비큐장에서 일렬로 서서 고기를 구웠다.

아빠 부대가 구워내는 맛있는 바비큐가 준비되자 아이들이 식당에 들어섰다. 이제부터는 속도전이다. 마치 바베큐 공장이 가동되는 듯 불맛 제대로 입은 맛있는 고기가 쉼 없이 공급되었다. 어느 정도 고기가 남기 시작하자 아이들 식사는 끝이 났고 우리의 시간이 돌아왔다.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며 건넨 건배에 얼큰하게 취해 마이크를 꺼내 들었다. 노래방 릴레이가 시작되었다. 남편과 부를 노래를 같이 골라본 게 언제 적인지. 못 부르는 노래를 한 곡 뽑고 나니 다음 타자들이 노래를 고르느라 고민하는 모습이 그저 즐겁기만 하다.

라이크 북 멤버들은 1박 2일 여행을 통해 또 한 번 식구가 되고 육아 동지가 되었다. 비록 다녀와서 힘들어 기절하더라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놀 줄 아는 육아 동지들이 있기에 일련의 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었다. 그다음 해까지 이어진 라이크 북의 활동은 마을 육아 동지들에게도,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선사해 주었다.

더숲 마녀회

유희은

나지막한 나무 울타리를 사이에 둔 이웃집 언니는 나보다 20살이 많다. 언니는 마을이 타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분양되었기에 언니 또래의 연령대가 많을 줄 알았단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와 같이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마도 도보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는 입지가 큰 역할을 한 듯하다. 그래서인지 입주 초부터 마을은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가 많았다.

할로윈에는 집마다 달달한 간식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어린이날 행사에는 각종 게임과 먹거리까지 준비하여 마을을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다. 이 같은 다양한 마을 활동에는 늘 혈기 왕성한(?) 엄마들이 주축이 되고 있었다.

이벤트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마을의 크고 작은 활동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6년 겨울, 공식적으로 더불어숲 타운하우스에 부녀회 1기가 만들어졌다. 2017년에 육아휴직을 계획하던 나는 그러한 이유로 부녀회 1기 운영진에 선출되었다. 옆집 언니가 초대 회장을 맡으시며 “소정 엄마가 안 하면 누가 해~” 하며 2단지 대표를 맡아달라고 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회장 라라, 부회장 능소화, 1단지 대표 미리네, 2단지 대표 소정맘, 3단지 대표 병용맘, 4단지 대표 빵샘으로 총 6명의 운영진이 구성되었다.(활동이 왕성했던 네이버 카페 아이디어가 공식활동명이 되던 때였다.)

그간 해온 활동들을 바탕으로 한 해 계획을 짰 채웠다. 오랜만에 예전 회의록을 꺼내어 활동 계획을 옮겨본다.

3월: 플리마켓

4월: 꽃 + 나무 심기

5월: 어린이날 행사

6월: 산행

8월: 여름방학 캠프, 천체관측

9월: 폴리마켓

10월: 할로윈 행사

11월: 달력 만들기

12월: 송년회

부녀회는 특별히 회비 없이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어 마을 활동으로 환원하는 방식이었다. 폴리마켓(벼룩시장)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준비한 음식을 팔고 정기적으로 헌 옷을 수거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운영되었다. 마을 행사 때마다 운영진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계획과 공지를 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고 언제나 준비는 마을 전체가 함께했다.

예를 들어 할로윈 행사로 놀이터를 꾸민다고 하면, 그림에 자신 있는 미대 나온 엄마들이 지휘봉을 잡는다. 당시에 만들어 둔 조형물, 포토존은 두고두고 행사 때마다 빛을 발했다. 행사 당일 이벤트로 풍선아트를 잘하는 아빠가 재능기부를 하고,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아이들을 위한 게임 진행했다. 그림 잘 그리는 언니 오빠들이 어린아이들의 페이스페인팅도 해주었다. 사진 잘 찍는 마을 주민이 사진을 찍고 필요한 물품은 행사 날 아침 일사불란하게 모인다. 행사 끝 정리도 ‘정리 시작합니다’와 동시에 온 마을 주민이 순식간에 해치우는 식이다.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늘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폴리마켓에는 손재주 많은 주민이 집에서 직접 만든 베이커리, 수제 청, 액세서리 등으로 마켓을 풍성하게 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품들을 가지고 나온 아이들도 한자리씩 차지하여 한바탕 즐거운 시장 놀이가 벌어진다. 떡볶이나 소시지, 어묵 같이 나누어 먹기 좋은 음식부터 솜씨 좋은 언니들이 준비해 주신 반찬 부스는 그야말로 젊은 엄마들에게 행복한 ‘언니 찬스’이다. 반찬 부스에는 친정엄마 손맛을 느끼게 해주는 멸치볶음부터 묵은지찜, 연잎밥까지 입이 호강하는 날이다.

마을 산행으로 우리 마을을 보듬고 있는 뒷산을 탐방하며 숲 이야기를 들려주고 퀴즈도 맞히고 보물찾기도 준비했다. 등산은 싫다던 아이들도 보물찾기가 있다는 말에 솔깃해 따라나서서는 산 정상까지 오르는 짜릿한 성취감도 맛보았다. 발갱게 익은 얼굴로 정상에서 브이를 짓던 아이들의 얼굴들이 지금도 흐뭇하게 떠오른다.

다양한 활동은 사진으로 남기고 그 사진을 담아 달력을 제작했다. 사랑스러운 가족과 이웃의 얼굴이 담긴 다음 해 달력을 여러 권 사서 시댁에 한 권, 친정에 한 권 보내드리고는 마을 살이의 행복함으로 이야기꽃을 피운다.

즐거운 부녀회 활동도 있지만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기 마련이었다. 입주 초기에는 단지 입구에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쓰레기장을 정리하는 것이 문제였다. 일반 쓰레기는 따로 모으면 되지만 재활용 쓰레기는 140세대에서 버린 것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재활용 처리 업체에서는 더 이상 수거 못 한다고 으름장까지 놓으셨다. 논의 끝에 단지별로 세대별로 돌아가며 매주 재활용 쓰레기장을 정리하기로 했고 다행히 많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재활용 정리에 동참해주었다.

그렇지만 쓰레기장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쌓여 갔고 매주 쓰레기장을 관리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정과 인원을 점검하는 일은 운영진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다. 특히 입주 당시 쓰레기장을 관리동 지하에서 운영한다고 했던 시행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구청 담당 직원과의 논의 중 쓰레기는 내 집 앞 배출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유레카를 외쳤다. 우리 마을 구조상 이 방법이 가장 좋은 해법이었다.

운영진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으나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카페에 올릴 공지글을 쓰고 운영진에게 먼저 공유했다.

“저 공지글 썼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상한 부분 없을까요?”

한껏 조심스레 마을 카페에 공지글을 올린다.

“저 〇〇세대에서 반대 댓글 달렸어요. 어떡하죠?”

마을 반응을 살피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한다.

“그분과 얘기해서 상황을 잘 말씀드렸어. 이해하신대?”

그렇게 또 한 건이 마무리되나 보다.

부녀회는 마을 여인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마녀회”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구성원들의 능력치를 생각하면 마법을 쓰는 마녀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마을 입구에 화단을 만들고, 꽃을 심고, 가로수를 심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놀이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마을 개선 사업을 진행한 것도 마녀회이다. 내가 사는 마을에 관한 관심이 있는 구성원들 덕에 마을은 늘 살아 숨 쉬었다.

더숲 마녀회에는 아직 회비가 없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회비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회비가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운영될 수 있던 건 마녀회 회원들의 마음 마음이 보태어져서이다.

음식 준비를 할 때도 “고추장은 우리 집에 많이 있어.” “종이컵, 젓가락 우리 집에 많아.” “식용유? 내가 갖고 올게.” 이런 식이다. 이렇게 함께 준비한 엄마들의 살림살이를 털어 마켓을 준비하고 저렴한 금액을 책정하고도 약간의 수익이 남으면 그것만으로도 함박웃음을 짓는 엄마들. 그렇게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참 많이 듣는다. 그게 마녀회를 운영하고 꾸려나가면서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코로나로 많은 활동이 멈췄지만 2022년에는 다시 마을에서 예전처럼 축제가 벌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더 오래 더숲 마녀회가 마을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길 바란다.

당신의 깃발을 들어주세요.

최정애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켜져 있는 관리동 1층이 눈에 들어왔다. 육아휴직 준비로 늦게까지 일을 마무리하다가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길이었다. 멈칫하며 관리동 앞 배롱나무 아래에 차를 세웠다.

'더불어숲'이라고 쓰여있는 이쁜 마을 간판과 동호수별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문구가 자리 잡은 곳이다. '이 예쁜 표지판도 마을 통장을 맡은 애라 언니가 만들어 주신 거였지…….' 매해 새로 이쁘게 칠도 하시며 정성으로 관리해 주시는 우리 마을의 마스코트다. 오늘도 동네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았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고 있는 관리동의 불빛이 나를 잡아 세웠다.

"안녕하세요. 벌써 12월 말이네요. 오늘 저녁 8시 관리동에서 내년에 일할 마녀회 운영진을 선출합니다. 모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동네 단톡방에서 오늘 저녁 올해 마지막 마녀회 정기모임이 있다는 공지 알림이 울렸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수고해 줄 부녀회를 뽑는 회의였다. 일할 사람을 구하는 일은 매해 어려웠지만, 올해는 더 힘들어 보였다.

늦게 퇴근하고 운전하며 오는 길 내내 운영진을 뽑지 못해 부녀회 모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어쩌나 마음 쓰면서 마을에 들어서던 참이다. 동네에 아이들을 맡기고 다시 회사에 다니게 되면서, 한해 한해 고마운 마음의 빛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퇴근해 집에 도착했을 시간까지도 회의가 진행 중이라면, 이번엔 내가 빛을 갠아야 할 차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의 시동을 끄고 다시 생각했다.

‘잘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하는 일과는 또 다른 일일 텐데?’

‘그다지 사교적이지 않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일까.’

‘아이들과 함께하려고 힘들게 낸 육아휴직인데 시간이 많이 뺏기진 않을까.’

계속 내 안에 질문이 생겼다. 그간의 상황으로 봐서 분명 대표를 맡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회의 중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들어가야 할까.

차 안이 쌀쌀해질 즈음, 관리동에 들어갔다. 예상대로의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 그간 마을 일로 수고해 주었던 고마운 얼굴들이 나를 반겨주었다. 회장을 맡고 있는 희은이가 제일 밝은 웃음을 띠며 나를 쳐다본다. 둘째딸 유리가 좋아하는 친구 수민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웃음을 보니 오는 내내 했던 고민이 사르르 내려앉는다. 그간 멀찌감치 서서 받기만 했지만, 이제는 줄 수 있는 구성원이 되어 보자 다짐이 들었다.

“감사하게도 그동안 받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저도 참여할게요.”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나는 그렇게 육아휴직과 함께 4기 마녀회 회장을 맡게 되었다. 깃발을 든 사람이 생기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한 자리씩 맡아서 같이 해보겠다고 했다.

“그럼, 내가 총무를 맡을게” 밝고 예의바른 태환이의 엄마, 정이 많은 효윤이다.

“저는 운영진 할게요” 쾌활한 에너지의 소유자인 은율이의 엄마, 항상 고마운 진이다.

“나도.” 둘째의 단짝인 서은이의 엄마, 말언니 역할의 필영 언니.

“나도.” 싹싹한 채현이의 엄마, 싹싹한 혜옥 언니.

모두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싶다.

“저도요.” 올해 새로 이사 온 미현 씨, 예쁜 세 딸의 엄마인 선미, 초등학교 일에도 열심인 성미 씨도 말했다.

“이번 운영진은 8세 엄마들이 주축이네요! 여덟 분 모두 애써주시기로 마음 모아 주셔서 감사드려요” 자리에 모인 모두의 얼굴이 환하다. 회의는 금세 끝이 났다.

뭐부터 해야 할지 잘 몰랐지만, 몇 해 동안 진행해 왔던 행사들이 있으니 함께 도움 받아가며 천천히 진행해보자고 생각하니 부담보다는 ‘함께하면 되지 뭐’라는 편한 마음이 들었다. 차를 세워 들어오길 잘했구나 싶었다. 우린 끝나자마자 집이 아닌 맥줏집으로 가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수다를 떨었다.

새해가 되고 육아휴직으로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생겼다. 운영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논의했다.

“마을 입구에 수시로 무단 주차하는 차들 때문에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위협해 보여요. 함부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도로가에 화단을 만들어 두면 좋겠어요.”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갑자기 길로 뛰어나와 위험한 적이 있었어요. 놀이터 입구에 문을 달면 어떨까요?”

젊은 엄마들이라서 아이들과 관련한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왔다.

“지금처럼 회비 없이도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간 해마다 진행하는 행사의 수익금으로 별도의 회비 없이 마녀회를 꾸려오고 있던 참이었다. 그때 진이가 아이디어를 냈다.

“시청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를 한대요. 우리 거기 지원해 보면 어때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는 그간 불편하다고 느꼈던 문제들을 해결했다. 많은 사람의 정성과 노력으로 마을 입구에 나무 화단을 만들고 기증받은 나무와 꽃을 심었다. 입구의 불법주차 문제는 사라졌다. 그리고 놀이터에는 화단을 조성하고 입구를 막는 문을 만들었다. 놀이터가 예뻐지고 좀 더 안전해졌다. 사업비는 마중물이 되어 더 많은 마을 주민들의 재능과 인력을 끌어내어 주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마루도 몇 개 만들어 놀이터와 골목에 두었다.

휴직하면서 배우고 싶었던 요가도 강사를 섭외해서 이웃들과 함께 관리동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좁고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더 기억되는 배려와 마음이 남게 되었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그날 마을 입구에서 한 결정이 내 할 몫을 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덤으로 아이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았나 싶다. 나서서 무언가 하는 걸 부끄러워했던 두 딸이 학교에서 회장도 하고 나서서 발표도 곧잘 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희생처럼 보였던 깃발 들기가 나와 가족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마을 일에 참여하면서 이웃과 더욱 친하게 되었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산책을 할 때 가족들이 나누는 이야기도 늘어 갔다. 주는 것만큼 행복도 커진다는 말은 명언임에 틀림없다.

[인터뷰] 어떻게 코로나를 보냈나요?

정리 신나리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다. 마을의 행사도 전면 중단되었고 놀이터에서 몰려다니던 아이들의 무리도 예전만큼 북적이지 않았다. 조용한 숲속 마을은 적막해졌다. 다들 팬데믹을 어떻게 보냈을까.

(한진) 2020년 개학과 등교가 연기되었을 때를 떠올리면 모든 것이 엉망이었고 우왕좌왕했다. 뒤늦게 개학했을 때에는 학교도 코로나가 처음이었기에 선생님들도 EBS 수업을 들으라고 할 뿐이지 실시간 수업도 없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

(유희은) 아이들이 휴대폰과 컴퓨터와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건 큰 부작용이었다. 디지털 노출이 생활이 되어버렸다. 예전엔 잠깐 잠깐 봤는데 수업이 끝나도 그것만 보고 있게 된다. 또 매일 어울려 놀던 친한 친구들끼리도 초기엔 다들 민감한 분위기라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아이들은 줌으로 만나 놀았다. 오프라인에서처럼 서로 책을 읽어주거나 마피아 게임 같은 놀이를 했다. 아이들의 적응력이란 정말 놀랍다.

(김세훈) 자연 속에 있는 마을이라는 입지를 최대한 이용하려 했다. 혼자서라도 틈틈이 마당의 작은 텃밭을 돌보았고 화초를 자세히 관찰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사춘기인 두 아이들과 삼개월이 넘도록 매일 뒷산에 올랐다. 아이들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엄마의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고 싶었다. 아이들도 산에서 발견한 것들을 공유해주면서 보람을 느꼈다.

학교가 다시 대면교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산행은 마무리 되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무척 귀하고 뿌듯했다.

(한진) 마당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마당에 텃밭을 반 평 만들었다. 1년 내내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것이 매우 큰 위로가 되었다. 또 5년간 묵혀 두고 있었던 장작 20망을 코로나 때 다 썼다. 낮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불을 때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풀 수 있었다. 아이들과도 밤마다 불 앞에서 모여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최정애) 아파트였으면 답답한 시간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다. 마당에서 커피 마시고 꽃 보고 하늘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사람은 못 만나서 힘들었지만 오히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깊어졌다. 또 코로나 때문에 마당 공사를 했고 난로를 설치하고 불을 때면서 캠핑 온 것처럼 놀았다. 고기도 구워 먹고 카페처럼 음악을 틀어놓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도 모여 있었다.

모두 10평 남짓 마당이라도 집 안에 고립되지 않게 해주는 주택 살이 덕에 코로나 블루를 이겨냈다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평소에 바빠서 못 보던 것을 자주 보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코로나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 전화위복이기도 했던 것이다.



319동 422동~406동

124동~102동

305동~317동

401동~405동

202동~221동

더불어숲









더불어숲, 마을에 살다

마을 공동체, 우리들의 이야기

발행일 : 2022년 5월 20일

글쓴이 : 김세훈, 신나리, 유희은, 최정애, 한진

펴낸곳 : 라이크 북 라이트 북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383번길 더불어숲 타운하우스

이메일 : shinnarious@gmail.com

이 책의 더불어숲 타운하우스의 '라이크북 라이트 북'에게 있으며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